



이근호

# 부상 공백, 백업 카드로 넘는다



손흥민·이청용·조영철 등 컨디션 난조 쿠웨이트전 출전 불투명

이근호 선봉... 이청용 공백 한교원, 구자철 부담 남태희로 대체

‘주전 못지않은 백업요원, 슈퍼서브를 대거 보유하라.’ 울리 슈틸리케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선수단 운영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 가운데 하나다.

13일 호주 캔버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쿠웨이트와의 2015 아시안컵 A조 2차전에서는 이런 목표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할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지난 10일 오만과의 경기를 마친 뒤 사흘 만에 다시 실전에 들어간다.

오만전에서 체력을 모두 쏟아낸 주전 라인업은 전날 필드 훈련을 건너뛰고 12일 마지막 전술 훈련에만 참가할 예정이다.

쿠웨이트는 지난 9일 호주와 A조 1차전을 치른 가

담에 한국보다 하루를 더 쉬면서 더 오래 전술을 연마할 기회를 얻었다.

한국은 설상가상 오른쪽 윙어 이청용(분천, 최전방 공격수 조영철(카타르SC), 오른쪽 풀백 김창수(가시와 레이솔)가 가벼운 부상으로 컨디션 난조를 겪고 있다. 간판 골잡이 손흥민(레버쿠젠)도 감기 증세로 쿠웨이트전을 앞둔 마지막 전술훈련을 지르지 못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23명의 실력이 상향 평준화해 누가 나서도 차이가 없도록 선수단을 운영하는 것은 모든 감독의 꿈”이라며 “나도 같은 꿈을 꾸고 있다”고 밝혔다.

쿠웨이트전에서는 오만전에서 제외된 선수들이 주전 못지않은 슈퍼서브로서 출격을 대비하고 있다.

최전방 공격수들의 만능이자 ‘중동 킬러’로 불리는 이근호(엘 자이시)가 주포로 선봉에 나설 수 있다.

손흥민이 빠지면 왼쪽 윙어로 출격할 가능성도 있

다. 패기가 넘치는 측면 전문가 한교원(전북 현대)은 이청용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슈틸리케호의 ‘황태자’로 불리는 남태희(레키아)도 오른쪽 윙어나 구자철(마인츠)의 체력 부담을 더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쿠웨이트전 출장이 불투명한 손흥민을 도울 선수로는 김민우(사간도스)가 주목된다. 김민우는 날개 공격수이지만 몸싸움에 능해 아래쪽으로 내려가 왼쪽 풀백의 부담까지 덜어줄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로 평가된다. 수비력이 강한 중앙 미드필더 한국영(카타르SC)도 박주호(마인츠)와 함께 기성용(스완지시티)의 짝으로 활약할 수 있는, 주전 못지않은 백업요원으로 꼽힌다. 왼쪽 풀백에 김진수(호엔하임), 박주호, 오른쪽 풀백에 김창수, 차두리(FC서울)도 주전, 비주전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센터백으로는 김주영(상하이 동아), 장현수(광저우 푸리)가 기선을 제압한 가운데 오래 주전으로 활약한 배태랑(알힐랄)과 테크니션 김영권(광저우 헝다)이 뒤를 받치고 있다. 골키퍼로는 이미 정성룡(수원 삼성),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김승규(울산 현대)가 탄실한 선수층을 구축한 지 오래다.

## 슈틸리케 감독 일문일답



울리 슈틸리케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쿠웨이트전에서 골 결정력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쿠웨이트와의 2015 호주 아시안컵 A조 2차전을 하루 앞두고 12일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쿠웨이트가 수비에 집착할 것이다. 볼을 소유하는 자가 경기를 지배한다는 철학에 따라 점유율을 높이며 결정력까지 발휘할 것이다”고 밝혔다.

## “주전-백업 기량차이 없어... 시원한 골잔치 하겠다”

-쿠웨이트가 첫 판에 쪼기 때문에 공세적으로 나올 것 같다는 전망이 있는데.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팀의 자세 자체가 수비적이다. 그런 기저에 깔린 정신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상대는 경기 중에도 전술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준비해야 한다.

-부상자들의 상태는 어떤가.

▲보통 하루 전에 스타팅 라인업을 통보하는데 이번에는 좀 기다려 봐야 한다. 조영철은 정상 컨디션을 찾은 것으로 보이고 김창수, 이청용은 내일까지 지켜봐야 한다.

-호주-쿠웨이트전 봤을 때 서너 차례 쿠웨이트가

위험적인 공격을 보였는데.

▲앞선 경기에서 오만은 첫 유효슈팅을 92분에 때렸다. 우리는 경기를 계속 지배했는데 실점 위기를 맞았다. 우리는 서너 차례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90분 내내 볼을 점유해도 골 결정력을 살리지 못하면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다. 볼을 소유하는 자가 경기를 지배한다는 철학대로 경기할 것이다. 그러면 결정력을 살릴 것이다.

-내일 경기에서 승점 3을 따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호주기자)

▲우리도, 호주도 2차전 승리가 중요하다. 내일 경기를 끝으로 호주와 한국이 8강에 진출하면 좋겠다. 무조건 승점 3을 따내야 한다.

-김창수가 부상이 아니었다면 차두리를 벤치에 앉혔을 것이다. 차두리를 너무 일찍 기용해 선수 기용의 전략 뒤를리지 않았다. (차두리는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함)

▲어느 포지션에 있는 선수이든 언제든지 나가야 할 때 나갈 수 있도록 준비돼 있어야 한다. 차두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다. 차두리는 김창수의 부상 때문에 일찍 기회를 잡아 경험, 노하우를 잘 살려 좋은 경기를 했다. 내일도 김창수의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출전 가능성도 있다. 원칙을 따르자면 우리 팀에서는 넘버1과 넘버23의 차이는 없다. 우리 선수들은 언제라도 출전할 수 있다. 모든 선수들을 존중하고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 노상래號, 방콕에 ‘겨울 등지’ 남기일號는 광양으로 광주 FC, 30일까지 합숙훈련

### 전남 드래곤즈 31일까지 전훈

‘노상래호’로 새 단장한 전남 드래곤즈가 태국 방콕에 캠프를 꾸렸다. K리그 클래식 전남 드래곤즈가 12일 인천공항을 통해 전지훈련지인 태국 방콕으로 출국했다. 전남은 오는 31일까지 해외 전지훈련을 하며 올 시즌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출전권 획득을 목표로 강도 높은 훈련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소집된 전남 선수단은 그동안 광양에서 체력 훈련을 하며 몸 만들기에 집중해왔다. 이번 전지훈련 기간에는 다양한 전술훈련을 실시하며 팀워크를 다지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주전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번 겨울 경험 있는 최효진, 정석민, 이지남, 기민식 등 주전급 선수를 대거 영입하면서 선수들의 자리 경쟁에 불이 붙었다. 새로 전남의 지휘봉을 잡은 노상래 감독은 “출정식 이후 선수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하고자 하는 열정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다. 이번 태국 전지훈련을 통해 K리그 클래식의 중심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전력을 만들어 올 것이다”며 전지훈련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전남 선수단은 방콕 전지훈련 이후 광양에서 훈련을 진행한 뒤 오는 2월9일 제주도로 2차 전지훈련을 떠날 예정이다.

클래식에 도전하는 광주 FC가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광양으로 떠났다. 지난 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시즌 첫 합숙훈련을 소화한 광주 FC가 12일 합숙훈련을 위해 광양으로 향했다. 이번 2차 전지훈련은 당초 계획보다 1주일 앞당겨 진행되는 것으로 광주는 오는 30일까지 19일 동안 합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는 기반시설이 갖춰진 전훈지에서 체력 훈련과 부분 전술훈련을 병행하며 전력의 기반을 갖출 방침이다. 기존 선수들은 스트레칭과 서킷트레이닝 등 근력, 지구력, 순발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합숙훈련 후반기에는 공을 이용한 체력훈련 등으로 부분 전술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강도높은 체력훈련을 받게 되는 신인선수들은 5차례의 연습경기를 통해 ‘옥석가리기’에 나서게 된다. 앞서 연습경기를 통해 기봉기를 확인 받은 신인 선수들은 기존 멤버들과 전술적인 호흡 등 실력을 점검받게 된다. 남기일 감독은 “클래식 무대에서는 그라운드 내에서 뛰는 양과 긴장감이 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체력적으로 준비돼 있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면서 “광주에서 서둘러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65개 정도 나왔다. 선수들 평균이 57~8개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휴식이 동안 체력적으로 관리를 잘해온 것 같다. 하지만 (이번 합숙훈련에서) 극한의 상황을 연출해 보다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